

긴급사태 선언 대상 구역 확대 등에 따른 4월 18일 이후 대응

2020년 4월 17일

오이타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

전국적인 감염 확대가 매우 우려되는 동시에, 오이타현에서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증가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있다.또, 어제, 「긴급사태 선언 대상구역」이 전(全) 도도부현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4월 18일 이후는 4월 14일 자 「4월 15일 이후의 당면 대응」, 4월 16일 자 「학교 등에 관한 4월 17일 이후의 대응」을 더해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 확대 방지 더욱 철저에 대해

(1) 도도부현을 넘는 이동 자속에 대해

4월 14일 자 본부 결정의 1(1) 각 호에 있는 요청(※)을 더욱 철저히 함과 동시에, 특히 대형 연휴를 향해 도도부현을 넘는 불요불급한 귀성이나 여행 등은 절대로 피할 것

※4월 14일 자 본부 결정에 있어서, 신종 플루 등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긴급사태 선언 구역」은 「특정 경계 도도부현」으로 바뀌 읽는다.

(2) 관광시설 등의 집객시설에 대해

관광시설 있어서도 입장자를 제한하는 등 이른바 3가지 조건을 피할 공리를 하여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할 것

(3) 사업소에 있어 접촉 기회 저감에 대해

사무소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 기회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텔레워크)를 확대하는 동시에 아울러 시차 통근이나 자전거 통근을 더욱 철저히 할 것

2 사업 계속에 대한 지원 실행에 대해

(1) 사업·고용 계속에 대한 지원으로서 고용조정 조성금이나 지속화 급부금의 급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상공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지원한다.

무담보 무이자 용자 제도에 대해서도,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구조를 서둘러 구축한다. 또한 지속화 급부금에 대해서는 매상이 감소한 사업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200만 엔, 개인사업주는 최대 100만 엔이 지급될 예정.

국가는 보정예산이 성립된 후 1주일 정도에 신청 접수를 개시하고 싶어 하여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후 2주 정도에 은행계좌로 입금될 전망이다.

(2) 현민이 하나가 된 감염방지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여관·호텔이나 음식업에 대한 현민과의 협동 지원을 구축하는 등 세심하게 대응을 한다.

(3) 이러한 지원은 신속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계 기관의 협력도 얻으면서, 반주형으로 지원해 나간다.